

# 연분홍 벚꽃 거리, 내년 봄엔 우리 함께 걷자

### 갤러리 이디 나강 초대전 공간·채색 각기 다른 일상

“내년 봄엔 거리로 나가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연분홍 벚꽃을 즐길 수 있기를.” 전시장은 그런 기대감을 안은 그림들로 채워졌다. 한라일보 1층에 자리한 갤러리 이디(ED)에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나강 작가의 초대전(한라일보 9월 2일자 8면)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별도 개막 행사를 열지 않고 이날부터 시작된 ‘휴(休)’ 주제 초대전에는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으로 그린 27점의 회화가 나왔다. 나 작가는 소소한 일상이 더없이 그리운 2020년과 2021년을 보내며 작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을 풀어냈다.

그의 작품들은 하늘 위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듯한 시점의 화면 구성으로 공간감과 몰입감을 준다. 대상의 특징과 의미를 품고 있는 각기 다른 색



8일부터 갤러리 이디에서 나강 작가 초대전이 열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담아낸 ‘휴식’ 연작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상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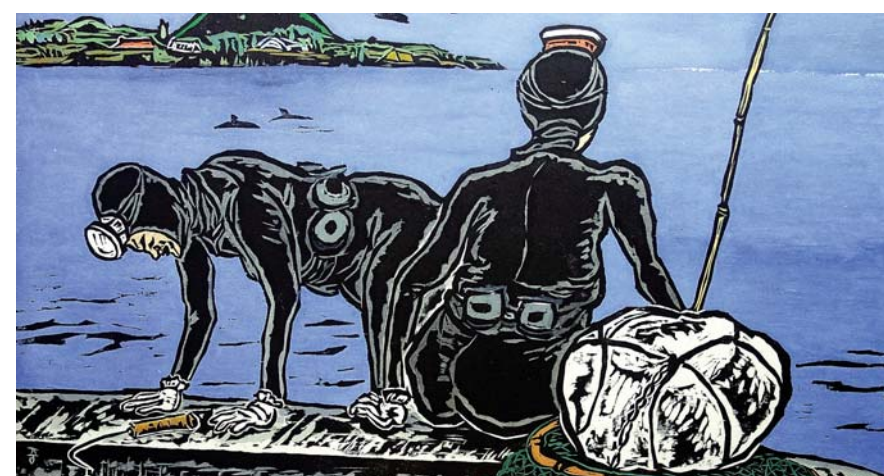
채,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다.

특히 ‘휴식’, ‘벚꽃 나들이’, ‘관조’, ‘수영장’으로 이름붙인 4개 연작의 작품을 찬찬히 따라가는 동안

어떤 이는 마치 4명의 작가가 전시를 펼치는 듯 저마다의 개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술대학 졸업 후 29년 만에 첫 초대 개인전을 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입체와 평면을 넘나드는

작품전을 이어오며 새로운 작업을 모색해온 나 작가의 창작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사전 예약 문의 750-2543. 전선희기자



김영중의 ‘해녀들은 바다에서 신다’

## 목판에 새긴 제주 바다와 숨비소리

### 김영중 해녀 목판화 개인전 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사연 더한 채색 목판화 등

그가 붙인 작품 제목에 해녀의 생애가 축약되어 있다. ‘아침 햇살은 좀 녀들을 부른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신다’, ‘뭇다 한 이야기’, ‘잠수’ 등이 그렇다. 해녀가 살았던 돌집에 등지를 틀었고 ‘해녀 삼촌’ 이웃들이 있는 그의 작업엔 자연스레 해녀의 이야기가 스밀 수밖에 없었다.

‘숨비소리로 바다와 소통하다’란 이름으로 제주도 도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 상설전시실 옆 ‘틈새 문화공간’인 갤러리 뽕다얏에서 9월 한 달 동안 목판화전을 열고 있는 김영중 작가다. 김 작가는 2012년부터 전통 목각 기법으로 해녀를 주제로 한 목판화 작업을 벌였고 이듬해엔 해녀박물관에서 기획전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그가 8년 만에 다시 목판

화로 제주 해녀를 조명하는 자리다.

김 작가는 검은 고무옷을 입고 자맥질하는 해녀의 일상을 드로잉한 뒤 목판과 조각도를 이용해 그 나날들을 새겼다. ‘잠수’, ‘숨비소리’ 등 흑백 목판화는 제주 섬에서 적어도 수백 년 이어왔을 물질 작업의 전통을 담아냈다. 채색 목판화는 거기에 사연이 포개진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 뒤 밖으로 나올 줄 모르는 어떤 해녀의 하루를 홀로 바다 위에 떠있는 태약으로 표현(‘뭇다 한 이야기’)하거나 물질의 고달픔을 바다를 향해 앉은 해녀의 뒷모습(‘해녀들은 바다에서 신다’)으로 형상화했다.

김 작가는 “전통과 인문학적 관점으로 해녀를 바라보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강인하고 진솔한 모습을 각인했다”고 밝혔다. 전시 작품은 30점이 넘는다. ‘해녀 삼촌’, ‘상군-중군-하군’ 등의 목판화는 작업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원판도 함께 공개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혼 담긴 명주실 고운 매듭 제주에 스미길

### 강문실 전통매듭 개인전 10년간 매듭장 보유자 사사 대삼작노리개 등 60여 점

인기 예능 프로그램 속 개그맨 유재석의 ‘부캐’인 유야호는 매번 고운 머리끈을 달고 나와 눈길을 사로잡았다. 손으로 한 올 한 올 엮은 전통 매듭으로 만든 거였다. 매듭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시대 신윤복의 ‘미인도’에도 등장했다. 그림 속 여인이 웃고춤에 장식한 노리개가 그것이다.



향갑노리개(맨 위)와 삼천주노리개.

다. 8일부터 제주시 아라동 심헌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인전으로 ‘전통매듭 제주에 스미길’이란 이름을 달았다.

강 작가는 일찍이 규방공예의 결정체인 전통매듭의 매력에 빠졌고 10년 전부터는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김혜순 보유자에게 매듭을 배우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규방공예전을 가져온 그는 이번엔 “공부하는 과정의 중간 점검”이라 여기며 전통 매듭만으로 전시를 마련했다.

복식이나 의식도구의 장식으로서 쓰이는 매듭은 여러 가닥의 실을 함께

서 세가닥 이상의 끈을 엮은 끈목을 이용한다. 끈이나 매듭의 아래엔 장식용 술을 달다.

강문실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 대삼작노리개, 삼천주노리개, 은투호삼작노리개, 금바늘집노리개, 약기유소, 방장걸이, 안경집, 호패 등 60여 점을 펼쳐놓고 있다. 명주실에 염색을 한 뒤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날라서 끈목을 짜고 실을 꼬고 술을 비벼서 고이 매듭을 맺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들 작품을 두고 “저의 혼과 정성이 담긴 분신과 같다”고 표현했다.

전시는 이달 18일까지(일요일은 휴관) 이어진다. 갤러리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전선희기자

## 악극에 담은 제주 바다 건너 해녀들

### 극단 가람 ‘가슴 아프게’ 비대면 공연 후 영상 중계 공연장 상주 우수레퍼토리

제주 해녀의 생애를 담은 창작 악극을 온라인 영상 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극단 가람이 이달 11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비대면으로 펼쳐지는 ‘가슴 아프게’다.

김통씨가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제주4·3과 한국전쟁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은뎠으로 겪은 주인공 순이를 등장시켜 제주 바다를 건너야 했던 출항 해녀들의 고통스런 삶을 귀에 익은 노래와 함께 담아낸다.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러린 이별만은 없었을 텐데...”, “해녀가 되는 순간부터 저 바다가 네 인생이야”라는 대사 안에 그 쓰러린 생이 녹아있다.

극단 가람은 “해녀의 역사는 굴곡 많았던 암울한 시대와 맞물려 거친 파도를 헤치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온 우리의 아픈 역사에 후손들이 이들을 소중하게 기억해야만 한다”는 기획 의도를 전했다. 고가영, 양진영, 김정희, 이승준, 강지훈 등이 출연한다. 공연장상주

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로 공연 장면을 녹화해 이달 중순에 극단 가람 유튜브 채널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극단 가람은 2019년 초연된 ‘가슴 아프게’를 ‘울어라! 바다야’란 연극으로 형식을 바꿔 2020년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제주 대표작으로 공연했다. 가람의 이상용 대표가 극본을 쓴 이 작품은 당시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을 수상했다. 문의 722-0794.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 도립무용단원 전국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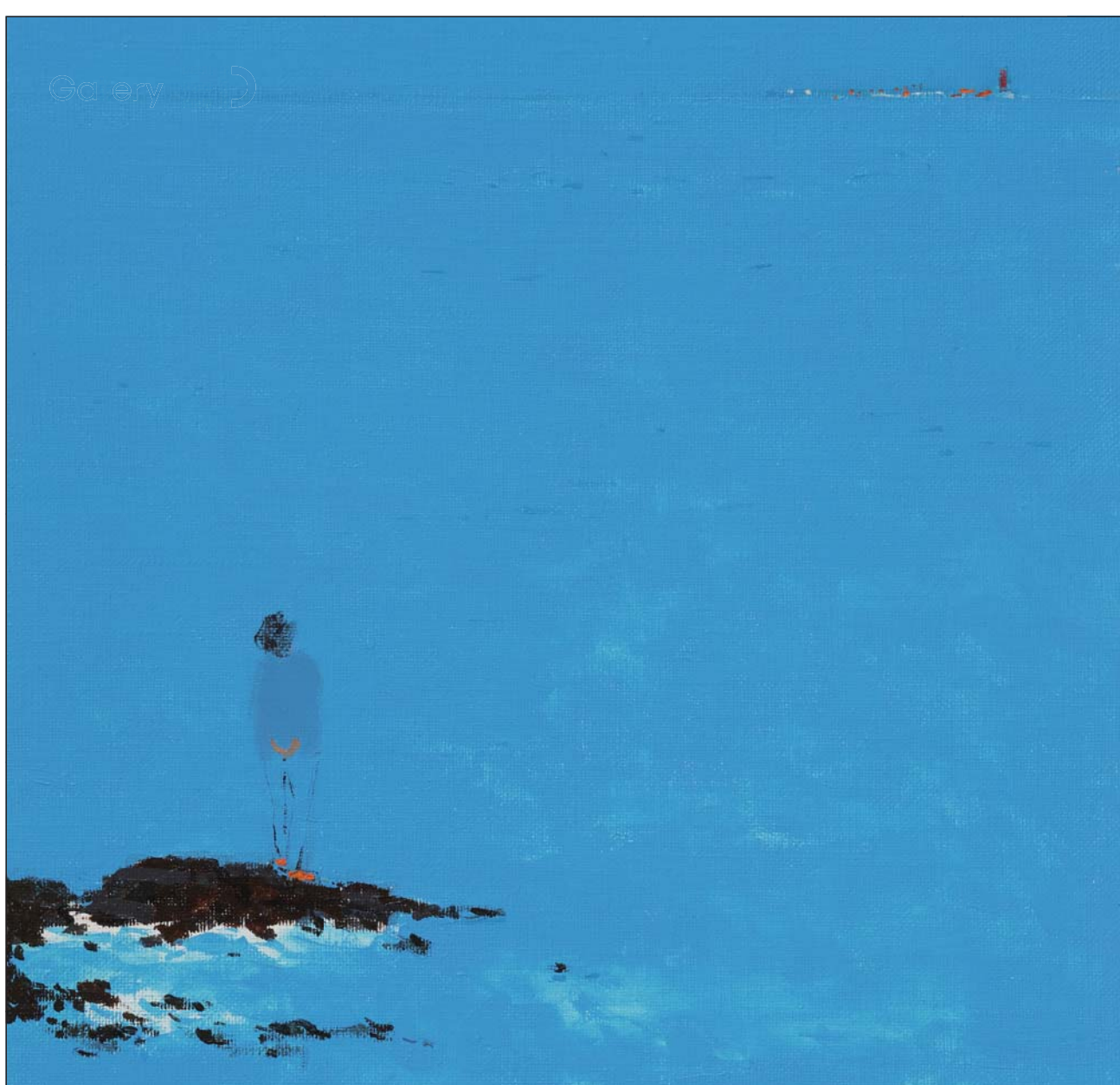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제주도립무용단 단원을 전국 공모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 공연을 앞두고 부족한 단원 수를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공모는 2년제 대학 이상 무용 관련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기 심사와 면접시험을 치른다. 지원서는 이달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한다. 희망자는 제주도청이나 도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한 뒤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710-7642.

#### 보체끼아라 정기음악회

제주성악동호회 ‘보체끼아라’가 이달 18일 오후 6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네 번째 정기음악회를 연다.

2017년 2월 창단된 보체끼아라는 제주도성악협회장을 지낸 김광정 성악가의 지도 아래 나이와 직업이 다양한 회원들이 발성 연습, 독창 레슨 등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단체다. 보체끼아라는 이탈리아어로 ‘맑고 깨끗한 소리’라는 뜻이다. 이번 공연에는 최덕진 대표를 비롯 10명이 출연해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이중창 등을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이지연씨가 맡는다.



# 休

## 나강 초대전

2021. 09. 08(수) ~ 10. 22(금)

###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日)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Close	17:00	